

통합검색

	뉴스	상품·산업	국가·지역정보	비즈니스	보고서
--	----	-------	---------	------	-----

상품·산업

전체

트렌드

상품 DB

국별 주요산업

트렌드

美, 전자부문 1위 베스트바이 등 소매유통 고전

2008-11-25 구분경 미국 실리콘밸리무역관

[금융위기]美, 전자부문 1위 베스트바이 등 소매유통 고전
- 2009년 첨단기술산업 소비 부진, 네트워킹 장비 회사 수익 감소 예상 -

보고일자 : 2008
실리콘밸리 코리아비즈
구분경 bonkyung@ko

인기정보

- 1 한국 빨간 맛, 베트남에서 ...
- 2 저성장시대에서 살아남은 ...
- 3 우리 기업에 딱 맞는 미개...
- 4 소비 불황에 대처하는 호주...
- 5 러시아 신세대 경제전문가...
- 6 2020년 러시아에서 돌 10...
- 7 中 과학기술산업의 현주소
- 8 세르비아에 부는 디지털 바람
- 9 일본 드론시장, 하늘을 나...
- 10 인도 애니메이션산업, 글로...

□ 첨단기술산업도 2009년 소비 및 수익 모두 부진할 듯

- 2009년 첨단기술산업의 소비 전망치 낮춰
- IDC는 2009년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전 세계 소비를 2.6% 소폭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며, 금융위기 전 전망치였던 5.9%에 비해 하향조정했음.
- 특히, 미국 내 소비는 0.9%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금융 위기 전 전망치였던 4.2%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
- IDC 애널리스트 스테펜 민톤은 미국 금융위기로 기업들이 소비 및 투자 계획을 수정한 직접적인 결과로 언급했으며, Ender Group 대표인 롬 엔델레는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침체는 실리콘밸리 경제에 특히 나쁜 소식이라는 의견을 표명. 미국 전자 작성한 2008년 Cybercities 보고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는 미국 내 최대 하이테크 산업지역으로 28.6%의 비중을 차지하며, 급료로 326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음.
- IDC는 2009년 성장을 둔화는 저장분야를 제외한 하드웨어 카테고리 중심으로 제한될 것이며,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는 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 5년래 최초로 실리콘밸리 네트워킹 장비 제조회사 수익 감소 예상
- 시스코 시스템즈의 존 챔버스 CEO는 금융위기로 실리콘밸리 네트워킹 장비 제조회사의 수익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는 견해를 피력
-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영업이익 45% 하락 및 18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칩 제조사인 테크놀로지사의 실적도 10% 하락을 예상하며, 서널 세미컨덕터는 영업이익 예상치를 낮추고 전체 인원 중 5%가량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원할 예정

□ 미국 1위 전자유통 Bust Buy 등 소매유통체인 고전

- 미국 1위 전자유통업체 Best Buy도 고전
- 미국 2위 전자유통업체 서킷시티가 파산한데 이어 1위인 베스트바이도 실적부진으로 고전
- 10월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7.6% 하락. 브라이언 던 COO는 43년간 소매업을 해왔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는 처음이라는 밝힘.
- 소매 유통체인, 매출 하락추세가 연말 쇼핑시즌까지 이어질 듯
- 베스트바이와 아울러, 미국의 대표적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Macy's)도 경제위기로 미국 소비자들이 구매를 억제하고 있어 연말 쇼핑시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
- 메이시스는 2008년 3/4분기 4400억 달러 손실을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00억 달러의 이익과는 대조적
- 또 다른 대형 소매유통 체인인 제이씨 페니(J.C. Penny)도 10월 13% 매출 하락을 발표
- 컨설팅 회사 액센츄어가 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말 쇼핑시즌에 구매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불과했으며, 40%는 지난해보다 연말 쇼핑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

- 메이시스의 CFO인 카렌 호켓은 다가오는 연말 쇼핑시즌도 여전히 손에 땀이 날 것 같으며, 이토록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은 아분다고 말함.
- 미국의 대표적 할인 유통업체인 타깃(Target)도 소매 및 신용카드사업 악화로 3/4분기 이익이 24% 하락. 특히 신용카드사업은 2007년 2억2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로 83% 급감
- 의류와 가구분야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부진해 연말 할인을 가격 월마트 수준으로 낮추는 등 공격적인 판매 전략에 나서고
- 실제로 타깃의 3분기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월마트는 10% 증가해 대조를 이루고 있음. 타깃의 수익구조가 생필품류나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나 돼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쇼핑을 줄이고 생필품 위주로만 구입하고 있다는 점이 주원인. 석되고 있음.

□ 경제인, 경제학자 모두 불황이 오래 갈 것으로 관측

○ 샌프란시스코만(灣) 기업 중역들도 어두운 경기 전망

- Bay Area Council이 509명의 중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가 6개월 내 자사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
- 건설부문이 60%, 소매업이 50%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반도체, 클린테크 및 에너지 부문만 상대적으로 밝은 경기 전망을 대부분 부정적임

○ 경제학자들도 미국 경제가 불황 속에 있다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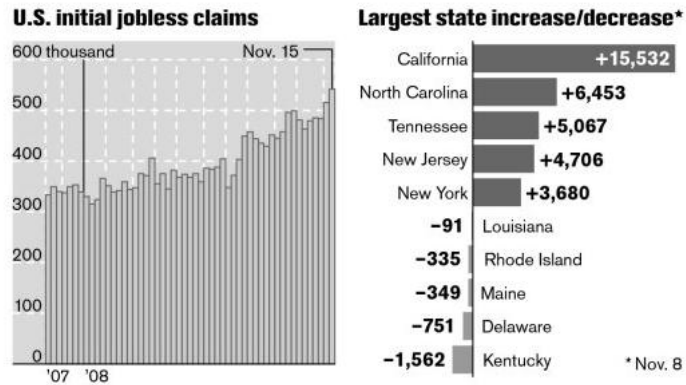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이 51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분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이 2008년 4월 본격적 불황에 들어선 미국 경제가 2009년 3/4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며, 현재 6.6%인 미국의 실업률도 7.6%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 웰스파코 은행의 스캇 앤더슨은 실업률이 2009년 말 8.5%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
- 또한, 대상자 중 35명이 미 의회가 2110억 달러의 경제활성화 계획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 대표 기니스는 금융 위기와 관련된 정부의 새로운 지출은 손실로 결부돼 다가오는 회계연도에는 24조 달러의 수익 대비 34조 달러 출로 1조 달러의 손실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 경고

□ 실업 증가로 실업수당 보유액 바닥날 수도

○ 신규 실업수당 신청 16년 만에 최고치

- 미국 노동부는 11월 셋째 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51만 5000건으로 16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발표. 실업보험 신청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1월 셋째 주 기준 1982년 12월 이래 최고치인 4000만 건 이상으로 급증
- 2008년 10월 실업률은 6.5%였으며, 미 연준은 2009년 실업률이 7.1~7.6%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미국 실업동향



Source: U.S. Labor Department'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News

○ 위기에 빠진 실업수당

- 실업증가로 인한 실업수당 신청 증가로 조만간 미 정부의 실업수당 보유액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최근 실업수당 증액 법안이 상원을 통과, 부시 대통령의 서명이 예상. 주요 내용은 실업수당을 모두 사용한 사람들에게 실업 불기간을 7주간 더 늘려 주자는 것. 평균 실업수당 금액은 주당 약 300달러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약 110만 직자가 2008년 말까지 실업보험 금액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으로 예측
- 캘리포니아 주는 고용주가 종업원 1인당 56~417달러 사이의 금액을 더 지불하도록 하거나, 시간당 15.5~24.95달러를 받는 주당 1~44달러 사이로 주단위 실업수당을 삭감하는 안이 제안됐으며 통과 시 2010년부터 발효될 예정
-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 노동연합의 에밀리 클라이트는 고용주의 부담을 늘린 것은 적법하나, 수급자의 실업수당 혜택을 삭감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 로리 레비 고용발전청 대변인은 법안 발효시 현재 연간 105~434 달러의 종업원 1인당 세금이 2161~850.5달러로 증가할 것이라 언급

- 워싱턴뉴추얼은 캘리포니아 플레산톤 지점을 폐점하고, 샌프란시스코灣 1600명의 종업원을 감원할 예정. 11월 셋째주 현 금융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16만8000명 가량이 해고됐음.

Top▲

- 더 많은 감원과 대량해고 있을 것
- 미국 내 실업수당 요청 건수가 16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는 등 실업률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몇몇 경제학자들은 이리
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경고
- 이미 대량해고가 시작된 건설·제조업체와 같은 부문도 추가적인 감원이 예상되며, 이제까지는 비교적 안전해 보였던 소매유통
기관, 호텔, 레스토랑까지 대규모 감원이 있을 것으로 우려

□ 전망 및 시사점

- 금융위기로 촉발된 불황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자 기업의 매출 및 수익이 악화됐으며, 자구책 마련에 나선 기업들이 대
원에 나서게 되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실업률 증가는 다시 추가적인 소비부진을 이끌게 되는 악순환의 고
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적어도 2009년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생필품 이외의 소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 전자·의류·가구 등 당장 소비하지 않을 수 있는 제품시장
없이 불황인 실정. 실업률이 급증하고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미국 시장을 잘 파악하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The Wall Street Journal, SF Chronicle, Mercurynews, Bloomberg, NY Times 등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추천(0)

스크랩

이전글	美 여성의류시장,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 고심 중
다음글	[금융위기] 베트남 관광산업 하락세로 반전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번호	제목	국가	작
1	멕시코 내년 정부예산안 통과, 적극적 경제위기 대처의지 보여	멕시코	200
2	세계 최대 전자제품 기업 Best Buy 대대적 폐점 계획 발표	미국	201
3	베스트 바이, 중국을 잘 몰랐다	중국	201
4	美 여성의류시장,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 고심 중	미국	200
5	[금융위기] 캐나다, 주별 경제 현황 및 예측	캐나다	200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
▼
||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KNOWTBT
Korean Network On World TBT

KIET 산업연구원

KIE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